

문화

KUNSTHALLE GWANGJU

콘스트 할레 행사 참여해보니



벼룩시장서 웃도 팔고... 공연도 즐기고

어린이·학생·50대 중년 등 400여명 찾아 문전성시

전시회·콘서트·영화상영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풍성

옛 전남도청 앞에 세워진 콘스트 할레(아시아 문화마루)는 아직은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공간이다. 지난 8월 선박용 컨테이너를 소각한 전시관으로 꾸민 이 공간에 대해 그 사용 용도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 콘스트 할레는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12월부터 매주 주말 음악콘서트와 전시회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광주 야(夜) 벼룩시장'은 첫 행사임에도 판매자를 포함 400여명이 찾아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벼룩시장은 엄마 손을 잡고 따라온 어린이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들, 지나 가다 들른 50대 중년 아저씨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찾았다. 벼룩시장을 통해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셈. 기자도 장롱을 정리할 겸 구입한 지 수년 된 셔츠와 청바지, 10년 넘은 가죽점퍼 등 헌 옷 30여 벌을 들고 직접 판매자로 나섰다. 셔츠는 1000원, 청바지는 2000원, 외투는 1만5000원을 책정했다. 벼룩시장 취지에 맞게 다소 저렴한 가격을 매겨왔다. '어차피 헌 옷인데'라는 심정. 입구에서 추첨으로 27번 번호표를 뽑아 2층에 자리를 꾸렸다. 마땅한 판매대가 없어 쓰지 않는 빨래건조대를 가져와 그 위에 담요를 덮고 셔츠와 청바지를 곱게 접어 차곡 차곡 쌓아올렸다. "정말 1000원이라구요?" "네 정말 1000원입니다." 오후 5시 개장하자마자 찾아온 첫 손님은 교복을 입은 여고생 2명이었다. 1000원을 받고 셔츠를 봉투에 담아 건네면서 짧은 순간 '1000원이면 너무 아까운 것 아닌가' 했지만 흔쾌히 손에 쥐어 주었다. "이 코트 마음에 드는데, 1000원만 깎아주시면 안돼요?" 일년 전 샀지만 사이즈가 작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코트다. 1만4000원에 넘겼다. 아주머니 한 분은 5000원을 내고 옷 5벌을 구입했다. 3시간여가 흐르자 손에 쥔 돈은 모두 4만 5000원. 셔츠와 청바지 15벌, 외투 2벌을 팔았다.

당근 화분은 1000원이었다. 손수 바느질을 한 테디베어는 1만5000원, 여러 나라의 동전을 붙여 만든 반지도 있었다. 이날 벼룩시장은 단순한 사고팔기의 장만은 아니었다. 지난 5일 뇌암으로 투병하다 숨진 가나 출신 노동자 프랭크 오세이(37)씨(광주일보 12월 6일 6면)의 시신을 본국으로 운구하기 위한 자선모금 행사도 열렸다. 시장 밖에서는 인디밴드 'LENI'가 라이브 공연을 펼쳤고, 음료와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코너가 마련돼 사교의 장소 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18일 옛 전남도청 앞 콘스트할레 광주에서 '광주 야(夜) 벼룩시장'이 열렸다. 이날 벼룩시장에서는 41명의 판매자들이 준비한 의류와 액세서리, 미술작품 등이 전시관 1·2층에 빼곡히 자리를 잡고 4시간 동안 손님을 맞았다. <사진=콘스트할레 광주 제공>

연필로 그려낸 그녀의 열정

박소빈展 23~31일 금호갤러리

그녀의 손가락은 성할 때가 없다. 연필을 쥐는 때 쌓인 나무 잔재가 수북한 작업실에서 오로지 연필만으로 옹과 여인을 그리고 있는 박소빈(39)의 손은 늘 상처 투성이다. 짧은 작가의 열정이 낳은 상처는 핏빛보다 진한 감동을 남긴다.

박소빈씨가 오는 23~31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뉴욕, 그이슈 2010'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지난 2008년 12월 미국 뉴욕시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ISCP(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 프로그램) 입주 작가로 활동하던 때 발표했던 작품과 근작을 함께 선보인다.

의상대사와 선묘의 사랑을 담은 부석사 설화를 모티브로 해 작품 속에 이야기가 넘치고, 15m가 넘는 대형 작품도 많이 볼거리도 많은 전시다.

색의 범람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모든 색을 버렸다. 화려한 색채 대신 연필을 사용한 특유의 검은 모노톤과 풍만하게 표현



'The Deep Dreams'

한 여인의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대 출신으로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색채학회, 아트그룹 자유로, 에펠드 목포 회원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현지 평론가와 '아트뉴스', '아트인 아메리카' 등 미술 전문지의 호평도 받았다.

또 북경창작센터 입주 작가와 미국 버몬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작가로 선정돼 내년에는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게 됐다. 문의 062-360-843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종이와 막대가 만들어낸 도시

국광운 작품전 21일~2011년 1월30일

종이와 막대 등을 이용해 도심 건축 구조물 형상을 닮은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국광운씨가 21일~2011년 1월30일 광주시 동구 운림동에 위치한 국음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다.

도시가 주는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국씨는 이번 전시에서 항공기에서 내려다 본 지상 풍경을 기호화된 지도처럼 표현한 평면 작업과 이를 종이를 이용해 입체화 한 설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그는 나무 토막을 연결해 기하학적인 형상을 만들어 냈는데, 이들 개별적인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도시와 현대인 복잡한 삶을 들



'Vis Essentialis'

여다 봤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는 세포의 조각처럼 유기성을 띠며, 삶에 많은 질문을 던진다.

목포대 미술학과와 전남대 회화과 대학원을 나온 뒤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전남도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문의 070-8878-655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2일 내벗소리민족예술단 정기공연

'내벗의 모뽀리' 진행... 빛고을시민문화관



(사)내벗소리민족예술단(단장 신경환) 정기 공연이 22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합창의 순우리말인 '모뽀리'를 공연 타이틀로 부쳐 '내벗의 모뽀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2003년 창단한 내벗소리는 민족의 화합과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민족 정서가 담긴 창작곡들을 꾸준히 발표해온 국악관현악단체다.

연주 레퍼토리는 '남녘 기악 모뽀리-산조 합주' 민요 '금강산 타령', '동백 타령', '사철가', '북녘 기악 모뽀리-첫봉화' 등이다. 문의 062-261-4002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어반폴리' 디자인 공모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어반폴리(Urban folly)' 프로젝트 참여하게 될 설계디자인안을 공모한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어반폴리 프로젝트는 광주 읍성터 10곳, 푸른길 3곳 등지에 이색 건축물을 세우게 되고 이번 공모를 통해 일반 참가자 1명을 선정하게 된다.

현상설계 대상부지는 광주 옛 읍성터 6번에 해당하는 광주세무서 인근 사거리며, 공모 기간은 오는 20일~내년 2월11일까지 총 53일간 진행된다.

당선작(상금 1천만원), 우수작(상금 500만원), 입선작(상패)을 선정한다. 문의 062-608-43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Keith Haring exhibition advertisement. Text: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해링展, 광주시립미술관 2010. 12. 8~2011. 2. 27. KEITH HARING. Includes a stylized drawing of two figures in red and yellow.

Arirang House advertisement. Text: 신년모임... 아리랑 하우스에서 품격 있게 모시겠습니다. 맛과 정성에 가득 담긴 떡국 한그릇과 함께 희망찬 새해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좋은 일들이 가득 하실 겁니다. Includes images of food and contact information for Geumsoo Jang Hotel.

Movie listings for various theaters. Includes columns for Columbus Cinema, Megabox, and Cinus.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Example: 'The Last Airborne' at Columbus Cinema.